

생육부진 장홍 득량만 키조개

4년째 채취 못해 어민 큰 타격

득량만 키조개 생육이 부진해 장홍 지역 생산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7일 장홍지역 키조개 양식어민들에 따르면 득량만 어장의 고소득물로 으로 알려진 키조개가 해적생물(파개비)과 해황 여건변화 영향으로 폐사현상과 더불어 성장이 부진하다.

키조개는 종래 이식후 통상 2년이면 채취할 수 있지만 현재 4년이 지나도록 채취를 못 하거나 대량 폐사현상이 나타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파개비(일명 쪽)가 키조개 겹집표면에 붙어 서

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계기가 둘인 ‘이매폐(二枚貝)’ 특성상 폐각을 벌렸다. 닫았다는 하는 정상적인 섭이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이 부진하거나 호흡장애를 일으켜 결국 30% 이상 폐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다이버(잠수부)들은 현재 키조개 양식장내 물속에 잠입해 서식한 따개비가 전반적으로 밀가루를 뿐 놓은 상태처럼 불어있다고 전했다.

키조개를 양식하는 장모(56·안양 면 수문리)씨는 “지난 2007년에 이식한 것을 비롯해 총 20만 미에 달하는

키조개를 4년이 넘도록 채취를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키조개는 지난 2008년 ‘자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지역 특산물로 대일 수출에 큰 짜를 차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나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키조개양식은 최초로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간 시험양식 과정을 거쳐 장홍과 고흥·보성 등 득량만에 350ha 양식면허 어장이 분포하며, 장홍 연안에서만 연간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갈대 너울대고 전어 펼떡이는 장홍으로 오세요”

천관산 역사제·바다낚시대회 등 내달 축제 풍성

은 타지역보다 특수한 자연환경과 웨빙문화 최적지로 가을산악관광 대축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천관산 정상(연대봉)에서 산상 역사박물관(한마당) 사이의 역사 굴뚝은 시원한 해풍과 함께 과도처럼 출렁이며 산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행사는 역사제를 비롯해 ▲우리가라 놀이마당 ▲산악인의 한마당전 ▲천관산 자연보호 운동 ▲여성 역사 굴뚝 축제 ▲행운원 축제 등이 열린다.

장홍군 관계자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장홍을 찾아 가을의 정취와 여유로움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061-860-0256)

/중부취재본부=김용기자 kykim@



가을 들녘 부부의 마늘 파종

원연한 가을로 접어든 27일 담양군 무정면 들녘에서 부부가 마늘파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심은 마늘은 내년 5~6월 중순께 수확하게 된다.

/담양군 제공

참번 몽골여성 유가족에 후원금 600만원

영암군 사회단체협

영암지역 사회단체가 최근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몽골 이주여성(본보 9월 18일자 3면 보도) 유가족 돕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전감

회를 통한 자정기탁금으로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갑홍 회장은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외국인 신분인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장례비용과 위로금 등을 수령할 수 없어, 장례문제를 놓고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재신기자 pjs@

영암지역 사회단체가 최근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몽골 이주여성(본보 9월 18일자 3면 보도) 유가족 돕기에는 물론 군의회, 사회단체에서 적극 참여했으며,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

화순군청 “공무원은 열공중”

동아리 결성해 어학공부 등 자기계발 열풍

화순군청에 ‘자기계발 열풍’이 불고 있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많은 직원이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의 여가를 활용, 어학연수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결성해 자기계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전원

준화순군수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출·퇴근시간 준수와 자기계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군 산하 직원 23명이 활동하고

있는 ‘스피치 열정클럽 동아리’.

회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매주 화요일 퇴근 후 회의실에 모여 학습활동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학원에 가서 스피치를 배우고 있다. 또 영어·중국어 회화반이 결성돼 많은 직원이 자기계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도예를 배우려는 동아리가 결성되는 등 지식을 넓히고 재능을 살리는 등 다양한 자기계발 열풍이 불어 업무환경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장성 군민의 상’ 공양진씨 수상



장성군은 최근

‘장성 군민의 상’ 문화·예술·교육부문 수상자로 공양진(68·남편)씨를 선정했다.

공씨는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비 2억원을 들여 양성장학회를 설립한 후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90명에게 총 3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시상식은 10월 1일 장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3회 군민의 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벼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호응

품종선택 등 현장교육 도움

장성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설치한 ‘벼 신품종 비교 전시포’가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안평리에 3000m² 규모의 신품종 비교 전

시포를 설치해 벼·糯大米 등 품질이 좋은 공공비축 수매품종인 온누리 벼와 동진 2호를 비롯해 기능성 품종을 등록한 품종 비교를 통해 업무향상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포는 벼 품종별 생육특성과 병해충 저항성·수량성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 내년도 품종선택

및 쌀 품질향상 핵심기술 등 농업인의 현장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고아미 벼’, ‘향기나는 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기능성 품종을 전시,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량 신품종 재배를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실천 가능한 재배기술을 지도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m²)/평 김정가 최저가

광주 북구 월계동 일산 115/44 9평전 298758 1억7천만원

수원동 161/49 3평전 2억4천만원

남구 서석동 145/44 29평전 1억6천만원

가정동 145/44 29평전 1억6천만원

한림동 165/52 29평전 1억6천만원

금정동 105/32 29평전 1억5천만원

화정동 158/48 29평전 1억5천만원

봉산동 172/52 39평전 2억7천만원

성동동 105/32 9평전 1억3천만원

제봉동 105/32 29평전 1억3천만원

화정동 158/48 29평전 1억3천만원

봉산동 105/32 29평전 1억3천만원

제봉동 105/32 29평전 1억3천만원